

〈일반논문〉

732년 渤海와 唐의 戰爭 과정 재검토

임 상 선 *

〈목차〉

- I. 머리말
- II. 唐의 黑水州 설치와 大門藝의 망명 시기
- III. 대문예 처리를 둘러싼 발해와 당의 갈등
- IV. 발해의 唐(登州) 공격
- V. 발해와 당의 교류 재개
- VI. 맺는말

[국문초록]

732년 渤海의 唐 登州 공격으로 시작된 발해와 당의 전쟁은 여기에 新羅도 참여하며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발해와 당의 갈등의 요인인 黑水靺鞨 문제와 大門藝의 唐으로 망명의 시기 판별은 흑수말갈의 入唐 시기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册府元龜』의 기록에 의하면, 발해와 당의 전쟁 이전에 흑수말갈이 마지막으로 입당한 시기가 開元 18년(730) 5월이므로, 발해 武王의 흑수 토벌과 대문예의 당 망명은 그 이후에 발생하였을 것이다. 대문예의 처리를 둘러싸고 발해와 당 간에 國書가 교환된 시기는 이때로부터 개원 20년(732) 登州 공격 이전 大姓取琬 등의 발해 사신이 마지막으로 입당한

*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개원 19(731)년 10월까지이다.

발해 무왕이 「敕渤海王大武藝書」 1首를 접수하고 당의 침입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맞선 대응의 결과가 당이 발해를 침입할 때의 전진 기지인 登州 지역에 대한 선제공격이었다. 최근 발견된 韦俊의 墓誌에 의하면, 발해의 등주 공격이 은밀히 진행되었고, 발해가 공격한 곳은 자사 위준이 근무하던 登州였다. 발해가 唐을 공격하게 된 원인으로는 흑수말갈을 둘러싼 대립, 대문예에 대한 양국의 상반된 인식, 발해국의 王位와 연관, 그리고 8세기 전반 발해를 비롯한 당, 거란, 돌궐 등의 국제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발해가 登州 공격 이후 당에 사신을 다시 파견한 것이 개원 23년(735) 3월이다. 이때 日本國 사신과 함께 武王이 그 동생인 蕃을 보내 당에 入朝하였다. 발해의 ‘背德’과 ‘誤計’가 언급된 「敕渤海王大武藝書」 2首와 4首는 개원 23년(735) 3월 전후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해와 당은 개원 23년(735) 무왕이 그 동생인 蕃을 보내 入朝하고, 당도 이를 수용하면서 교류를 재개하게 되었다.

□ 주제어

渤海, 唐, 黑水靺鞨, 武王, 大門藝, 玄宗, 登州, 戰爭

I. 머리말

발해 武王은 719년 즉위하고 적극적으로 세력을 확대해 갔다. 주변 민족들은 발해에 편입되거나, 혹은 저항하였다. 발해 동북방에 있던 黑水靺鞨도 발해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하여 唐에 접근해 갔다. 이로 인하여 발해와 당 사이의 대립이 격화된 결과, 732년에 발해가 당의 登州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신라도 참전하면서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발해와 당의 전쟁은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¹⁾ 연구는 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해명하는데 있었다. 발해가 727년 최초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이유가 흑수말갈 문제로 당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거나,²⁾ 혹은 이 전쟁에 참여한 신라가 溟江 이남의 땅을 획득하게 된 과정 등과 같이 발해보다는 일

- 1) 三上次男, 「渤海國の興亡」, 『圖說世界文化史』 19, 角川書店, 1959.
 末松保和, 「新羅の郡縣制, 特に完成期の二三の問題」, 『學習院大學文學部研究年報』 21, 1975; 1995,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2: 新羅の政治と社會 下』, 吉川弘文館, 1995.
 古畑徹, 「大門芸の亡命年時について - 唐渤海紛争に至る渤海の情勢 -」, 『集刊東洋學』 51, 東北大学中国文史哲研究会, 1984.
 古畑徹, 「張九齡作「勅渤海王大武芸書」第一首の作成年時について - 「大門芸の亡命年時について」補遺」, 『集刊東洋學』 59, 1988.
 古畑徹, 「唐渤海紛争の展開と國際情勢」, 『集刊東洋學』 55, 1986(임상선 편역, 「唐渤海紛争의 展開와 國際情勢」,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1990).
 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 - 南北國의 形成과 展開」, 신서원, 1994.
 沈勝求, 「渤海 武王의 政治的 課題와 登州攻擊」, 『군사』 31, 1995.
 石井正敏, 「對日本外交開始前後の渤海情勢 - 玄宗皇帝「勅渤海王大武藝書」の檢討 -」,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1.
 酒寄雅志,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2001.
 권은주, 「靺鞨 7部の 實體와 渤海와의 關係」, 『高句麗渤海研究』 35, 2009.
 이영호, 「金思蘭: 唐을 선택한 망명자」, 『복원사림』 28, 2010.
 김종복, 「발해와 당의 사신 파견을 통해 본 大門藝 亡命사건의 추이」, 『역사와경계』 76, 2010.
 朴南守, 「신라 聖德王代 溟江鎮 설치 배경」, 『사학연구』 110, 2013.
 권은주, 「발해의 등주 공격을 통해 본 국제동맹과 외교」, 『역사와 세계』 44, 2013.
 冯晓晓, 「唐代登州刺史韦俊墓志铭考析」, 『鄂州大学学报』 第24卷 第2期, 2017.
 辛时代・郭威, 「韦俊墓志与渤海寇登州事件始末」, 『北方文物』 2018년 2기 등 참조.
- 2) 그러나 727년 발해가 일본에 전한 국서나 일본의 답서에도 흑수나 당과의 긴장 관계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본의 送渤海使 임명(728년 6월)과 귀국(730년 8월)에 대한 기사에서도 발해의 국정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임상선, 「8세기 韓日 關係史 爭點의 再檢討 - 渤海・日本간의 國交 개시와 '新羅征討計劃' 문제를 중심으로 -」, 『新羅史學報』 41, 2017)

본 혹은 신라 측의 입장에 관심이 많았다. 최근에는 발해와 당 이외에 거란, 돌궐 등의 북방민족도 포함한 동아시아 국제 관계 속에서 발해와 당의 전쟁을 규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³⁾ 이밖에 발해와 당의 전쟁이 발해 내부의 세력 다툼이나 왕위계승 문제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종래 발해와 당의 전쟁 연구는 전쟁의 원인 설명에 치중하다 보니, 전쟁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다. 전쟁의 배경이나 원인이 되는 사건의 시기 등이 불명확하고, 이로 인하여 전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732년 발해와 당의 전쟁에 대한 문헌 자료를 비롯하여 최근 새로 발견된 묘지문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의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唐의 黑水州 설치와 大門藝의 망명 시기

발해와 당 전쟁 발발의 배경으로 주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흑수말갈과 대문에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사건들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舊唐書』 卷199下, 列傳第149下, 北狄, 靺鞨

開元 13년(725)⁴⁾, 안동도호 薛泰가 흑수말갈 안에 黑水軍을 두자고 청하

3) 古畑徹, 「唐渤海紛爭の展開と國際情勢」, 『集刊東洋學』 55, 1986(임상선 편역, 「唐渤海紛爭의 展開와 國際情勢」,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1990); 권은주, 「발해의 등주 공격을 통해 본 국제동맹과 외교」, 『역사와 세계』 44, 2013 참조.

4) 연도 등 필요한 부분을 ()에 표기하였다. 이하 같다.

였다. 이를 변경하여 가장 큰 부락으로 黑水府를 삼고 그 추장으로 都督을 삼아 다른 여러 部의 刺史를 예속시켰다. 중국에서는 長史를 두어 그 부락들을 감령케 하였다. 16년(728)에 그 도독에게 李氏의 성과 獻誠이라는 이름을 내리는 한편, 운휘장군 兼黑水經略使를 제수하고, 이어서 幽州都督을 그의 압사로 삼았다. 이로부터 조공이 끊이지 않았다.⁵⁾

② 『新唐書』 卷219, 列傳第144, 北狄, 黑水靺鞨

개원 10년(722) 그 추장 倪屬利稽가 내조하니, 玄宗은 그를 勃利州刺史에 제수하였다. 이에 안동도호 薛泰가 黑水府를 두자고 청하므로, 부장으로 都督 또는 刺史를 삼고, 조정에서 長史를 두어 감리케 하였다. 府都督에게 李氏를 사성하고 이름은 獻誠으로 하여, 雲麾將軍·領黑水經略使로 삼아 幽州都督에 예속시켰다. 玄宗의 末年까지 15번 朝獻하였다. 大曆 연간(766-779)에는 모두 일곱 번, 貞元 연간(785-804)에는 한번 왔으며, 元和 연간(806-820)에는 두 번 왔다.⁶⁾

『구당서』와 『신당서』는 흑수말갈에 黑水府 등이 설치되는 일련의 과정이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개원 10년(722) 그 추장 倪屬利稽가 조근을 오니, 玄宗은 그를 勃

5) 『舊唐書』 권199下, 列傳第149下, 北狄, 靺鞨, “(開元十三年, 安東都護薛泰請於黑水靺鞨內置黑水軍. 續更以最大部落爲黑水府, 仍以其首領爲都督, 諸部刺史隸屬焉. 中國置長史, 就其部落監領之. 十六年, 其都督賜姓李氏, 名獻誠, 授雲麾將軍兼黑水經略使, 仍以幽州都督爲其押使, 自此朝貢不絕”

6) 『新唐書』 권219, 列傳제144, 北狄, 黑水靺鞨, “(開元十年(722), 其酋倪屬利稽來朝, 玄宗卽拜勃利州刺史. 於是安東都護薛泰請置黑水府, 以部長爲都督·刺史, 朝廷爲置長史監之, 賜府都督姓李氏, 名曰獻誠, 以雲麾將軍領黑水經略使, 隸幽州都督. 訖帝世, 朝獻者十五. 大曆世凡七, 貞元一來, 元和中再.”

利州刺史에 제수하였다.⁷⁾

둘째, 개원 13년(725), 안동도호 薛泰가 흑수말갈에 黑水軍을 설치하자고 청하였다.⁸⁾

셋째, 개원 14년(726), 조정에서 변경하여 흑수말갈의 최대 부락을 黑水府로 하고 그 수령을 都督으로 삼고, 長史를 두어 부락을 監領하기로 하였다.⁹⁾

넷째, 개원 16년(728), 흑수부 도독에게 李氏를 사성하고 이름은 獻誠으로 하고, 운휘장군·영흑수경략사로 삼아 幽州都督에 예속시켰다.

발해 무왕이 즉위 이후, 적극적인 세력 확장을 피하자¹⁰⁾ 흑수말갈도 이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발해와 국교를 연 당도 발해에 대한 견제의 끈을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었다. 개원 10년(722) 흑수 추장 倪屬利稽가 입당하고, 당 현종이 그를 勃利州刺史에 제수하는 일을 계기로, 양측의 교류는 밀접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발해가 흑수말갈과 당의 연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은 어느 시기부터일까. 위 기록에 따르면, 725년 안동도호 薛泰의 黑水軍 설치 주장에 이어서, 726년 흑수부 설치와 유주도독의 감독이 시작된

7) 『册府元龜』 褒異條에는 “(唐 玄宗 開元 10년) 閏五月癸巳 黑水酋長親屬利稽來朝 授勃州刺史 放還蕃.” 『册府元龜』 卷975, 外臣部, 褒異第3)라 했다.

8) 『구당서』 발해말갈전에서는 개원 14년(726), 흑수말갈이 내조하자 그 땅을 흑수주를 삼았다고 한다. (“(開元)十四年, 黑水靺鞨遣使來朝, 詔以其地爲黑水州, 仍置長史, 遣使鎮押.” 『舊唐書』 199下, 北狄列傳, 渤海靺鞨) 본문 ① 말갈전의 기록은 薛泰가 개원 13년 흑수말갈에 흑수주를 두자고 청한 것에 이어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설태의 흑수주 설치 건의가 개원 13년, 조정에서 바꾸어(續更) ‘흑수부’를 설치한 것은 그 다음해인 개원 14년으로 생각된다.

9) 古畑 徹도 개원 10년 발리주 설치, 개원 13년 설태의 주청, 그리고 개원 14년에 흑수주도독부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古畑徹, 「大門芸の亡命年時について - 唐渤海紛争に至る渤海の情勢-」, 앞의 책, 21쪽)

10) 『新唐書』 219, 北狄, 渤海, “(玄宗 開元 7년) 祚榮死, 其國私諡爲高王. 子武藝立, 斥大土宇, 東北諸夷畏臣之.”

시기부터였을 가능성이 높다. 흑수말갈 부장이 당으로부터 흑수부도독, 이현성이란 성명을 받으며, 당과 흑수말갈의 연계가 실재화면서 위기감은 높아져 갔다.

흑수부가 설치된 이후, 발해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 사료인 『구당서』 발해전의 내용을 검토해 본다.

③ 『舊唐書』 卷199下, 列傳第149下, 北狄, 渤海靺鞨

- ㉠ (개원) 14년(726), 黑水靺鞨이 사신을 보내와 조공하므로 조칙으로 그 땅을 黑水州로 삼아 長史를 두고, 사신을 보내어 진압케 하였다.
- ㉡ 武藝가 부하들에게, “黑수가 우리 국경을 거쳐서 처음으로 唐과 서로 통하였다. 지난날 突厥에게 吐屯을 청할 적에도 모두 우리에게 먼저 알리고 함께 갔었다. 이제 뜻밖에 바로 당의 벼슬(漢官)을 청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당과 공모하여 앞뒤로 우리를 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친아우 大門藝 및 그의 舅 任雅를 시켜 군대를 이끌고 가서 黑水を 치게 하였다.
- ㉢ 門藝는 일찍이 불모로 京師에 왔다가 開元 초년에 본국에 돌아갔으므로, 이 때 문예에게, “흑수가 당의 벼슬을 청하였다 하여 그를 바로 치고자 한다면 이는 당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당은 사람의 많음과 군사들의 강함이 우리의 1만 배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원수를 맺는다면 스스로 멸망을 부를 뿐입니다. 지난날 高麗가 전성할 적에 강병 30만으로 당과 맞서서 복종을 하지 않다가, 당병이 한번 덮치매 땅을 쓴 듯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오늘날 渤海의 인구가 高麗의 몇 분의 일도 못되는데, 그래도 唐家를 違背하려 하니, 이 일은 결단코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武藝는 듣지 않았다. 門藝의 군사가 국경에 이르렀을 적에 또 글을 올려 군이 간하자, 武藝는 화를 내어 從兄 大壹夏를 보내어 문예를 대신하여 군사를 통괄하게 하고, 문예는 불려다 죽이

려 하였다.

㉔ 문예가 마침내 그의 무리를 버리고 셋길로 도망쳐 오니, 조칙으로 左驍衛將軍을 제수하였다. 얼마 후 武藝가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치고, 이어서 表文을 올려 문예의 죄상을 극력 말하고 죽여주기를 청하였다. 玄宗은 몰래 門藝를 安西로 보내고 武藝에게는, “문예가 먼 곳에서 귀순해 왔으므로 의리상 죽일 수가 없었소. 이제 嶺南으로 流配하였는데 벌써 길을 떠났소.” 라고 회보하는데, 그의 사신 馬文軌와 葱勿雅는 머물러 있게 하고, 따로 사신을 파견하여 회보케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을 곧 누설한 자가 있어서 武藝는 또 글을 올려, “大國은 남에게 信義를 보여야 하거늘 어찌 거짓을 일삼는단 말입니까? 이제 들으니, 門藝가 嶺南으로 떠나지 않았다 합니다. 엎드려 청하건대 앞서 청한 대로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고 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鴻臚少卿 李道邃와 源復은 官屬을 督察하지 못하여 일을 누설시킨 죄로, 道邃는 曹州刺史로 좌천되고 復은 澤州刺史로 좌천되었다. 그리고 문예를 잡시 嶺南으로 보내고서 회보하였다.

㉕ (開元) 20년(732), 武藝가 그의 장수 張文休를 보내어 海賊을 거느리고 登州刺史 韋俊을 공격하였다. 문예를 파견하여 幽州에 가서 군사를 징발하여 이를 토벌케 하는 동시에 太僕員外卿 金思蘭을 시켜 新羅에 가서 병을 징발하여 渤海의 南境을 치게 하였다. 마침 산이 험하고 날씨가 추운 데다 눈이 한길이나 내려서 병사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으니, 전공을 거두지 못한 채 돌아왔다. 무예가 원한을 풀지 못하여 몰래 東都에 사신을 보내어 刺客를 빌어 天津橋 남쪽에서 門藝를 저격케 하였으나, 문예가 자객들을 물리쳐서 죽지 않았다. 河南府에 명하여 그 賊들을 모두 잡아다 죽였다.¹¹⁾

11) 『舊唐書』 199下, 北狄列傳, 渤海靺鞨, “(開元)十四年, 黑水靺鞨遣使來朝, 詔以其地爲

『구당서』의 기록은 개원 14년부터 개원 20년 발해의 登州 공격 직후까지 발해와 당간의 긴장된 관계를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黑水 문제에 대한 武王의 흑수토벌 조치와 大門藝의 당으로의 망명의 시기가 불명확하다. 학계에서는 개원 14년(726), 黑水靺鞨의 조공과 黑水州 설치, 발해의 흑수토벌, 그리고 대문예의 망명까지도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년이라는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일이 발생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무리가 있다.

흑수말갈 문제의 전개 시기는 ㉠ 무왕의 이야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흑수말갈이 당과 相通할 때 모두 발해에 먼저 알리고, 혹은 함께 갔다. 그런데 흑수말갈이 당의 관리를 청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왕이 흑수 토벌을 결정하기 전에는 흑수말갈이 발해와 함께 당에 갔다는 사실이다.¹²⁾ 그렇다면 무왕이 흑수 토벌에 나선 이후에는 흑수말

黑水州，仍置長史，遣使鎮押。武藝謂其屬曰黑水始與唐家相通。舊請突厥吐屯，皆先告我同去。今不計會，即請漢官，必是與唐家通謀，腹背攻我也。遣母弟大門藝及其舅任雅發兵以擊黑水。門藝曾充質子至京師，開元初還國，至是謂武藝曰黑水請唐家官吏，即欲擊之，是背唐也。唐國人衆兵強，萬倍於我，一朝結怨，但自取滅亡。昔高麗全盛之時，強兵三十餘萬，抗敵唐家，不事賓伏，唐兵一臨，掃地俱盡。今日渤海之衆，數倍少於高麗，乃欲違背唐家，事必不可。武藝不從。門藝兵至境，又上書固諫。武藝怒，遣從兄大壹夏代門藝統兵，徵門藝，欲殺之。門藝遂棄其衆，問道來奔，詔授左驍衛將軍。武藝尋遣使朝貢，仍上表極言門藝罪狀，請殺之。上密遣門藝往安西，仍報武藝云門藝遠來歸投，義不可殺。今流向嶺南，已遣去訖。及留其使馬文軌·葱勿雅，別遣使報之。俄有洩其事者，武藝又上書云大國示人以信，豈有欺誑之理！今聞門藝不向嶺南，伏請依前殺却。由是鴻臚少卿李道邃·源復以不能督察官屬，致有漏洩，左遷道邃爲曹州刺史，復爲澤州刺史。遣門藝暫向嶺南以報之。二十年，武藝遣其將張文休率海賊攻登州刺史韋俊。詔遣門藝往幽州徵兵以討之，仍令太僕員外卿金思蘭往新羅發兵以攻其南境。屬山阻寒凍，雪深丈餘，兵士死者過半，竟無功而還。武藝懷怨不已，密遣使至東都，假刺客刺門藝於天津橋南，門藝格之，不死。詔河南府捕獲其賊，盡殺之。”

12) 발해가 이렇게 흑수말갈의 대외활동을 통제했다는 것은 흑수가 발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권은주, 「靺鞨 7부의 實體와 渤海와의 關係」, 『高句麗渤海研究』 35, 2009, 61쪽)

같이 당에 입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흑수말갈의 입당 기록을 찾아보자. 개원 14년(726) 흑수부 설치 전후의 흑수말갈의 입당은 『册府元龜』 朝貢條¹³⁾와 褒異條¹⁴⁾에 있다. 흑수말갈은 발해와 함께 개원 10년 이후, 개원 12(724)년과 開元 13년(725) 입당했다. 개원 13년에는 정월, 3월, 4월과 5월 4회 방문하였고, 그 중 정월, 4월, 5월에는 흑수말갈이 발해와 함께 입당하였다. 개원 14년(726)의 흑수부 설치 는 개원 13년의 흑수말갈의 입당 이후의 일이었다. 흑수말갈은 5년이 지난 개원 18년(730)에 다시 입당했다. 같은 해 5월에 발해말갈의 사신 烏那達初가 來朝하고, 이때 契丹·吐火羅와 함께 黑水靺鞨이 阿布科思를 보내 來朝하고 方物을 바쳤다.¹⁵⁾ 그리고 개원 18년 이후, 흑수말갈 사신이 다시 당에 오는 것은 개원 29(741)년 2월이다. 발해 失阿利, 월희말갈 烏舍利와

13) 개원 13년(725) 정월에 흑수말갈의 五郎子가 발해 大首領 烏借芝蒙이 賀正使로 와 방물을 바쳤다. (『唐玄宗 開元』 十三年(725) 正月, 契丹遣使, 渤海遣大首領烏借芝蒙, 黑水靺鞨遣其將五郎子, 大食遣其將蘇黎等十三人, 並來賀正旦, 獻方物.) 『册府元龜』 卷971, 外臣部16, 朝貢4)

14) 개원 12년 2월, 개원 13년 4월과 5월에 渤海와 함께 흑수말갈이 내조하였고, 개원 13년(725) 正月, 3월에는 흑수말갈만이 입당한 기사가 있다.

『册府元龜』 권975, 外臣部20, 褒異2

“(唐玄宗 開元 十二年 二月 乙巳) 渤海靺鞨遣其臣賀正來賀正. 新羅遣其臣金武勳來賀正. 勃律遣大首領蘇磨羅來賀正. 並進階遊擊將軍, 各賜帛五十疋放還蕃. 丙辰 黑水靺鞨大首領屋作個來朝, 達莫婁大首領諸皆諸來朝, 並授折衝放還蕃.”

“(唐玄宗 開元)十三年(725) 正月辛丑 契丹奚遣使來賀正旦 獻方物 並授中郎將 賜紫袍銀鈿帶 放還蕃. 黑水靺鞨遣其將五郎子來賀正旦 獻方物 授將軍 賜紫袍金帶魚袋 放還蕃 --- 三月丙午 鐵利靺鞨大首領封阿利等一十七人來朝 越喜靺鞨苾利施來朝 黑水靺鞨大首領烏素可蒙來朝 佛湟靺鞨薛利蒙來朝並授折衝放還蕃 --- 四月甲子 渤海首領調德 黑水靺鞨諸箇蒙來朝 並授果毅 放還蕃 --- 五月 渤海王大武毅之弟大昌勃價來朝 授左威衛員外將軍 賜紫袍金帶魚袋 留宿衛 黑水部落職紇蒙等二人來朝 授中郎將 賜紫袍銀帶金魚袋 放還蕃”

15) 『册府元龜』 권971, 外臣部16, 朝貢4, “(唐玄宗 開元十八年(730) 五月, 渤海靺鞨遣使 烏那達初來朝 獻海豹皮五張 貂鼠皮三張 瑪瑙盃一 馬三十匹. 契丹遣使獻馬十二匹. 吐火羅維難庵來朝貢獻瑞麥香藥等. 黑水靺鞨遣使阿布科思來朝 獻方物.”

함께 흑수말갈 阿布利稽가 賀正使로 당을 방문하고, 모두 郎將의 직위를 받고 귀국하였다.¹⁶⁾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개원 20년(732) 발해의 당 공격 이전에 흑수말갈이 마지막으로 입당한 시기는 개원 18년(730) 5월이다. 이때가 무왕이 흑수 토벌에서 언급한 발해와 흑수가 함께 입당한 마지막 시기이다. 그렇다면, 무왕의 흑수 토벌과 대문예의 당 망명은 그 이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¹⁷⁾

III. 대문예 처리를 둘러싼 발해와 당의 갈등

대문예의 망명 이후 발해와 당은 사신을 통하여 국서를 교환하며 대문예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다. 발해와 당의 전쟁 이전 마지막 발해 사신은 개원 19년(731) 10월의 大姓取珍 등 120명이다.¹⁸⁾ 발해와 당이 대문예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사신을 통한 의견교환이었을 것이다.

16) 『册府元龜』 권975, 外臣部20, 褒異2, “(唐玄宗 開元) 二十九年(741) 二月己巳, 渤海靺鞨遣其臣失阿利, 來賀正, 越喜靺鞨遣其部落烏舍利, 來賀正, 黑水靺鞨遣其臣阿布利稽來賀正. 皆授郎將, 放還蕃.”

17) 古畑徹도 친당파인 대문예가 內戰에서 패하고 730년에 唐에 망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古畑徹, 「大門芸の亡命年時について -唐渤海紛争に至る渤海の情勢-, 앞의 책, 26쪽; 古畑徹, 「張九齡作「勅渤海王大武芸書」第一首の作成年時について -「大門芸の亡命年時について」補遺, 앞의 책; 古畑徹, 「唐渤海紛争の展開と國際情勢」, 앞의 책, 209쪽).

18) 『册府元龜』 권971, 外臣部16, 朝貢4, “(唐玄宗 開元十九年(731)) 十月, 西室韋遣使來朝. 渤海靺鞨王遣其大姓取珍等百二十來朝.”
『册府元龜』 권975, 外臣部20, 褒異2, “(唐玄宗 開元19년 10월 癸巳) 渤海靺鞨王其大姓取珍等百二十人來朝. 並授果毅, 各賜帛三十疋, 放還蕃.”

양국 사신의 방문 시기는 등주 공격 이전 발해와 흑수말갈이 함께 입당한 시기로부터 발해 사신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기간 사이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원 18년(730) 5월부터 개원 19년(731) 10월 사이가 된다.

이 시기를 설명하는 앞의 자료 ③-㉔에는 발해와 당이 서로 두 번에 걸쳐 국서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난다. 발해가 문예의 죄상을 극력 말하고 죽여주기를 청하자(발해 1차 국서), 당 현종은 몰래 門藝를 安西로 보내고 武藝에게는 門藝가 먼 곳에서 귀순해 왔으므로 의리상 죽일 수가 없어 嶺南으로 流配 보냈다고 답하였다(당 1차 국서). 발해 무왕이 문예를 영남으로 보내지 않은 것을 알고 당이 信義를 지키지 않은 것을 비난하고, 재차 죽여 줄 것을 청하였다.¹⁹⁾(발해 2차 국서). 당 현종은 門藝를 잠시 嶺南으로 보내고 답서를 보냈다(당 2차 국서).

발해와 당 사이 주고받은 국서 가운데 재상인 張九齡이 작성한 당 현종의 칙서 일부가 『全唐文』 등에 남아 있다. 門藝를 잠시 嶺南으로 보내고 발해 무왕에게 보낸 칙서(당 2차 국서)가 아래의 「敕渤海王大武藝書」 1首이다.²⁰⁾

④ 張九齡, 「敕渤海王大武藝書」 1首(『全唐文』 권285)

흘한주자사 발해군왕 대문예에게 칙서를 보낸다.

경은 형제기간에 서로 원망하고 싸워 대문예가 궁해져 나에게로 귀의 하였소. 어찌 받아 주지 않을 수 있겠소. 그러나 그를 서쪽 변방 지역에

19) 현존하는 자료에 의한다면, 대문예를 영남으로 보내지 않은 것을 알고 현종에게 재차 문예를 죽여 줄 것을 청하는 표문을 가져간 사신은 731년 10월의 대성취진 일행이었을 것이다.

20) 「敕渤海王大武藝書」 1首의 작성 시기를 종래 727년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체로 731년 8·9월 혹은 732년 7월 전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古畑徹, 「張九齡作「勅渤海王大武芸書」第一首の作成年時について - 「大門芸の亡命年時について」補遺, 앞의 책, 104쪽, 表1 참조)

있게 한 것은 경을 위해서 이고 또한 잘못이 아니니, 자못 적절한 조처라 할 것이요. 어째서 그런가? 경의 땅이 비록 바다 모퉁이에 있으나 평소에 중국의 문화를 익혔으니, 형제간에 우애롭고 공경하는 것이 어찌 익히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소. 혈육 간은 정이 깊으니 차마 하지 못할 바이요. 대문예가 過惡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 改修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경은 그를 잡아서 동쪽으로 돌아가 도륙하려고 하고 있소. 짐은 천하를 孝友로써 가르치고 있는데, 어찌 다시 차마 이런 일을 들을 수 있겠소. 참으로 경의 명성과 행실을 애석해하는 것이지, 어찌 도망자를 보호하는 것이겠소. 경이 나라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침내는 덕을 배반하려 하고 있소. 경이 믿는 바는 멀리 있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소.

짐은 근년 이래로 睿忍하고 中土를 돌보아 왔고, 장수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일이 또한 때가 있기 때문이니, 경이 능히 잘못을 뉘우치고 정성을 보인다면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될 것이요. 말은 순한 것 같은데, 뜻은 아직 미욱한 것을 고집하여 대문예를 죽인 뒤에야 귀국하겠다고 청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말이요. 경의 표장을 살펴보니 역시 충성스럽지만 꼼꼼이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소. 지금 內使로 하여금 가서 짐의 뜻을 알리도록 하였으니, 일일이 구술할 것이요. 사신 李盡彥에게 짐이 또한 직접 처분한 것이 있으니, 모두 그것을 알게 될 것이요. 가을이 찬데, 경 및 아관, 首領, 백성들은 모두 평안하시요. 아울러 崔尋扈을 함께 보내오. 글의 뜻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많소.²¹⁾

21) 『全唐文』 권285, 「敕渤海王大武藝書」1首, “敕忽汗州刺史渤海郡王大武藝：卿於昆弟之間自相忿鬪，門藝窮而歸我，安得不容？然處之西陲，為卿之故，亦云不失，頗謂得所，何則？卿地雖海曲，常習華風，至如兄友弟悌，豈待訓習？骨肉情深，自所不忍。門藝縱有過惡，亦合容其改修，卿遂請取東歸，擬肆屠戮，朕教天下以孝友，豈復忍聞此事。誠惜卿名行，豈是保護逃亡？卿不知國恩，遂爾背德，卿所恃者遠，非能有他。朕比年含容，優恤中土，所未命將，事亦有時。卿能悔過輸誠，轉禍為福，言則似順，意尚執

「敕渤海王大武藝書」1首는 현종이 무왕에게 보낸 마지막 답서이다. 이 칙서를 통하여, 무왕이 현종에게 보낸 국서(발해 2차 국서)의 내용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발해는 바다 모퉁이에 있으나 항상 중국의 풍습을 익히고 있으며, 둘째, 過惡가 있는 대문예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며, 셋째, 문예를 安西에 보내고 嶺南으로 보냈다 한 것은 믿음을 보여야 할 대국(唐)이 속임수를 쓴 것이며, 넷째, 대문예를 잡아서 동쪽으로 돌아가 도륙하겠으며, 다섯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이 도망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1首는 바로 앞의 무왕의 국서 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첫째, 문예가 궁해서 와 받아들인 것이다. 둘째, 서쪽 변방에 있게 한 것은 경을 위해서이지 당의 잘못이 아니다. 셋째, 孝友라는 측면에서 차마 대문예를 죽이거나 돌려줄 수 없다. 넷째, 이러한 결정은 경의 명성과 행실을 애석해하는 것이지 도망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다섯째, 당의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해의 배은망덕 행위에 대한 응징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 다섯째가 본 칙서의 핵심내용이다. 당은 발해의 행위가 國恩을 알지 못하고 덕을 배반한 것이다. 발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땅이 멀리 떨어져 있어 토벌이 어려울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배은망덕의 행위를 계속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어느 때에는 장수를 임명하여 토벌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1首의 작성 시기를 판단하는 데는 본 칙서를 기초한 張九齡(678 - 740)의 이력이 참조가 된다. 장구령은 唐 韶州 曲江(지금의 廣東省 韶關市) 출신으로, 玄宗 開元 연간의 이름난 재상이며, 詩人이었다.²²⁾ 中書侍郎, 同中書

迷。請殺門藝，然後歸國，是何言也？觀卿表狀，亦有忠誠，可熟思之，不容易爾。今使內使往，宣諭朕意，一一並口具述。使人李盡彥，朕亦親有處分，皆所知之。秋冷，卿及衙官首領百姓平安好，並遣崔尋抱同往，書指不多及。”『文苑英華』 권471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門下平章사가 된 개원 21년(733) 12월 이전 祕書少監·集賢院學士, 知院事, 中書侍郎일 때, “渤海詔(발해에 보내는 조서)”를 잘 작성하였다. 장구령이 이 직책이 된 것은 張說(667-730年)이 개원 18년(730) 12월 죽기²³⁾ 전의 천거에 따른 것이라 한다.²⁴⁾

그렇다면 장구령이 ‘발해조’ 즉, 「敕渤海王大武藝書」를 작성한 시기는 장열이 죽은 개원 18년(730) 12월부터 그가 中書侍郎, 同中書門下平章사가 되는 개원 21년(733) 12월 이전이 될 것이다.²⁵⁾ 학계에서도 「敕渤海王大武藝書」 1首 작성 시기를 『曲江集』附錄의 장구령의 묘비문을 참고로 개원 19년부터 개원 20년 사이로 간주하고 있다. 묘비문에 張說(燕公)이 죽은 뒤 장구령이 祕書少監集賢院學士, 副知院事로 발탁되어 발해왕 武藝에게 보내는 글을 현종의 뜻에 맞게 고쳤고, 그 공으로 尚書工部侍郎兼知制誥가 되었다는 기록을 참고로,²⁶⁾ 장구령이 발해왕 대무예에게 보내는 칙서를 작

22) 『舊唐書』 권99, 列傳제49, 張九齡傳 및 『新唐書』 권126, 列傳제51, 張九齡傳.

23) 『舊唐書』 권97, 列傳제47, 張說傳, “(開元)十八年, 遇疾, 玄宗每日令中使問疾, 并手寫藥方賜之. 十二月薨.”

24) 『舊唐書』 권99, 列傳제49, 張九齡傳, “初, 張說知集賢院事, 常薦九齡堪為學士, 以備顧問. 說卒後, 上思其言, 召拜九齡為祕書少監·集賢院學士, 副知院事. 再遷中書侍郎. 常密有陳奏, 多見納用. 尋丁母喪歸鄉里. 二十一年十二月, 起復拜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明年, 遷中書令, 兼修國史.”

『新唐書』 권126, 列傳제51, 張九齡傳, “始, 說知集賢院, 嘗薦九齡可備顧問. 說卒, 天子思其言, 召為祕書少監·集賢院學士, 知院事. 會賜渤海詔, 而書命無足為者, 乃召九齡為之, 被詔輒成. 遷工部侍郎, 知制誥. 數乞歸養, 詔不許. 以其弟九皋·九章為嶺南刺史, 歲時聽給驛省家. 遷中書侍郎, 以母喪解, 毀不勝哀, 有紫芝產坐側, 白鳩·白雀巢家樹. 是歲, 奪哀拜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固辭, 不許. 明年, 遷中書令. 始議河南開水屯, 兼河南稻田使. 上言廢循資格, 復置十道採訪使.”

25) 다만 현재 남아있는 장구령의 ‘발해조’는 그 내용으로 보아, 732년 발해와 당의 전쟁 이후에 작성된 것도 있다. 石井正敏은 장구령의 官歷을 참고하여 敕渤海王書의 작성 기간이 개원 20년(732) 7·8월에서 개원 24년(736) 11월경까지라 하였다. (石井正敏, 「對日本外交開始前後の渤海情勢 - 玄宗皇帝「勅渤海王大武藝書」の檢討-, 앞의 책, 309-311쪽)

성한 시기를 祕書少監集賢院學士, 副知院事이 된 이후로부터 尚書工部侍郎 兼知制誥가 되기까지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구령이 앞의 관직을 역임한 개원 19년(731) 3월 7일부터 개원 20년(732) 8월 3일간에 제 1수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⁷⁾

「敕渤海王大武藝書」1首 작성 시기는 장구령의 이력 이외에 앞에서 언급한 발해의 입당 시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大姓取珎 등 120명의 발해 사신이 입당한 시간이 개원 19년 10월이다. 이들이 등주 공격 이전에 마지막으로 입당한 발해 사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앞의 대무예에게 보내는 현종의 칙서(1首)는 이들이 귀국할 때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IV. 발해의 唐(登州) 공격

발해와 당은 수차에 걸쳐 대문예 처리를 둘러싸고 사신을 교환하며 해결을 시도하였다. 무왕은 「敕渤海王大武藝書」1首를 접하고는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당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26) 『全唐文』 권440, 「唐尚書右丞相中書令張公神道碑」(徐浩 作), “屬燕公薨落, 斯文將喪, 擢祕書少監集賢院學士, 副知院事。時屬朋黨, 頗相排根, 窮棲歲餘, 深不得意。渤海國王武藝違我王命, 思絕其詞, 中書奏章, 不愜上意, 命公改作, 援筆立成。上甚嘉焉, 即拜尚書工部侍郎兼知制誥, 扈從北巡, 便祠後土, 命公撰赦, 對禦為文, 凡十三紙。”

27) 칙서의 작성 시기를 731년 8·9월로 보는 견해(古畑徹, 「大門芸の亡命年時について -唐渤海紛争に至る渤海の情勢-,」 앞의 책, 25쪽; 古畑徹, 「張九齡作「敕渤海王大武藝書」第一首の作成年時について -「大門芸の亡命年時について」補遺-,」 앞의 책, 110쪽; 김중복, 「발해와 당의 사신 파견을 통해 본 大門芸 亡命 사건의 추이», 앞의 책, 15-17쪽), 혹은 개원 20년(732) 가을(7월경)로 추정하는 주장이 있다(石井正敏, 「對日本外交開始前後の渤海情勢 - 玄宗皇帝「勅渤海王大武藝書」の檢討-,」 앞의 책, 321-328쪽).

이에 맞서 발해 무왕은 732년 9월, 당의 遼州를 선제공격하며 전쟁을 시작하였다.

⑤ 『新唐書』 卷219, 列傳第144, 北狄, 渤海

玄宗 개원 7년(719)에 대조영이 죽으니, 그 나라에서 사사로이 시호를 高王이라 하였다. 아들 武藝가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여러 오랑캐들이 겁을 먹고 신하가 되었으며, 사사로이 연호를 仁安으로 고쳤다. 황제가 典冊을 내려 王 및 都督을 세습시켰다. 얼마 안 되어 黑水靺鞨의 사신이 입조하므로, 玄宗은 그 땅을 黑水州로 삼았다. 長史를 두어 總管케 하였다. --- 군사가 국경에 이르렀을 적에 門藝가 포글을 올려 굳이 간하자, 武藝는 화를 내어 從兄 壹夏를 보내어 대신 통솔케 하고, 문예는 불러다 죽이려 하였다. 문예가 두려워서 사인길을 통하여 귀순해 오니, 조칙으로 左驍衛將軍을 제수하였다. 무예가 使者를 보내어 문예의 죄악을 폭로하고, 죽이기를 청하였다. --- 무예가 사실을 알고 글을 올려 드러내놓고, “폐하는 거짓을 천하에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니, 기어코 문예를 죽이라는 뜻이었다. 황제가 [李]道邃와 [源]復이 국가의 일을 누설한 데 대해 노하여 모두 좌천을 시키고, 거짓으로 문예를 물리쳐서 회보하였다. 10년 뒤에 무예가 대장 張文休를 파견하여 海賊을 거느리고 遼州를 치니, 현종은 급히 문예를 파견하여 幽州의 군사를 동원시켜 이를 공격하는 한편, 太僕卿 金思蘭을 사신으로 新羅에 보내어 군사를 독촉하여 渤海의 남쪽을 치게 하였다. 마침 날짜가 매우 추운 데다 눈이 한길이나 쌓여서 군사들이 태반이나 일어 죽으니, 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무예가 그 아우에 대한 원망이 풀리지 않아서 자객을 뽑아 東都에 들여보내 길에서 저격케 하였으나, 문예가 그들을 물리쳐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河南에서 자객들을 체포하여 모두 죽였다.²⁸⁾

⑥ 『三國史記』 卷第46, 列傳 第6, 崔致遠

고구려의 유민들이 서로 모여 북으로 太白山 아래에 기대어 나라 이름을 발해라고 하였습니다. 開元 20년에 천자의 조정을 원망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登州를 갑자기 습격하여 자사 韋俊을 살해하였습니다. 이에 明皇帝께서 크게 노하여 내사 高品·何行成과 태복경 金思蘭에게 명하여 군사를 동원하여 바다를 건너 공격하여 토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왕 김모에게 더하여 정태위·지절·충영해군사·계림주대도독으로 삼았습니다. 겨울이 깊고 눈이 많이 내려 蕃(신라)과 漢(당)이 추위에 고생하니 회군하도록 칙명을 내리셨습니다. 지금까지 3백여 년 동안 한 쪽 지방이 무사하고 넓은 바다가 편안하니 이는 곧 우리 무열대왕의 공로입니다.²⁹⁾

⑦ 『新唐書』 卷136, 列傳第61, 烏承玘

오승자의 자는 德潤이고 張掖人이다. --- 발해 大武藝와 동생인 門藝가 나라에서 싸우던 중, 문예가 왔다. 조서를 내려 태복경 金思蘭과 함께 范陽과 新羅兵 10만을 내어 그를 토벌하게 하였으나, 공이 없었다. 武藝

28) 『新唐書』 권219, 列傳제144, 北狄, 渤海, “玄宗 開元七年, 祚榮死, 其國私諡爲高王子武藝立, 斥大土字, 東北諸夷畏臣之, 私改年曰仁安. 帝賜典冊襲王并所領. 未幾, 黑水靺鞨使者入朝, 帝以其地建黑水州, 置長史臨總. --- 兵至境, 又以書固諫. 武藝怒, 遣從兄壹夏代將, 召門藝, 將殺之. 門藝懼, 僂路自歸, 詔拜左驍衛將軍. 武藝使使暴門藝罪惡, 請誅之. --- 武藝知之, 上書斥言「陛下不當以妄示天下, 意必殺門藝. 帝怒道遂·復漏言國事, 皆左除, 而陽斥門藝以報. 後十年, 武藝遣大將張文休率海賊攻登州, 帝馳遣門藝發幽州兵擊之, 使太僕卿金思蘭使新羅, 督兵攻其南. 會大寒, 雪袤丈, 士凍死過半, 無功而還. 武藝望其弟不已, 募客入東都, 狙刺於道, 門藝格之, 得不死.”

29) 『三國史記』 권제46, 列傳제6, 崔致遠傳, “高句麗殘孽類聚, 北依太白山下, 國號爲渤海. 開元二十年, 怨恨天朝, 將兵掩襲登州, 殺刺史韋俊. 於是, 明皇帝大怒, 命內史高品·何行成·大僕卿金思蘭, 發兵過海攻討. 仍就加我王金某, 爲正大尉·持節·充寧海軍事·雞林州大都督. 以冬深雪厚, 蕃·漢苦寒, 勅命迴軍. 至今三百餘年, 一方無事, 滄海晏然, 此乃我武烈大王之功也.”

가 자객을 보내 東都에서 문예를 찌르고, 병사를 이끌고 馬都山에 이르러 城邑의 사람을 죽였다. 承玘가 要路를 막고 큰 돌로 구덩이를 만든 것이 4백리에 이르니, 적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에 流民들이 돌아오고 병사들이 조금 쉬며 갑옷을 벗고 밭을 갈게 되었고, 運錢을 감해 주었다.³⁰⁾

⑧ 「大唐故中散大夫登州刺史韋君墓誌銘 并序」

군의 휘는 준, 자는 원준이고 京兆人이다. --- 무지한 島夷(발해)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가 숨어서 큰 바다를 건너 바로 고립된 성을 목표로 삼았다. 갑자기 관사에서 죽으니 나이 57세였다. --- 억울하게 죽으니, 하늘이여 무슨 이유인가, 오호 슬프다. 개원 21년(733) 5월 20일 洛陽에 歸葬하여 渤海郡君 刀氏와 북망산 평음향 들에 같이 묻혔으니, 예에 맞았다 --- 島夷가 재앙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망하였다. 東海로부터 와 北邙으로 돌아갔다.³¹⁾

발해는 개원 20년(732) 9월, 張文休를 보내어 登州刺史 韋俊을 살해하였다. 당 玄宗은 발해 공격에 맞서 당나라 국내와 국외의 양면 대응에 나섰다. 국내적으로는 登州와 幽州 지역에서 발해와 전쟁을 벌였다. 등주에는

30) 『新唐書』 권136, 列傳제61, 烏承玘, “烏承玘字德潤, 張掖人。--- 渤海大武藝與弟門藝戰國中, 門藝來, 詔與太僕卿金思蘭發范陽、新羅兵十萬討之, 無功。武藝遣客刺門藝於東都, 引兵至馬都山, 屠城邑。承玘窒要路, 塹以大石, 互四百里, 虜不得入。於是流民得還, 士少休, 脫鎧而耕, 歲省度支運錢。”

31) “君諱俊, 字元俊, 京兆人也。--- 蠢尔島夷, 遠在荒裔, 潛度大海, 直指孤城。變生倉卒, 薨于官舍, 春秋五十有七 --- 不得其死, 天乎謂何? 嗚呼哀哉! 以開元廿一年五月廿日歸葬于洛陽, 與渤海郡君刀氏同穴 北邙山平陽鄉之原, 禮也 --- 島夷作孽, 今也則亡。來從東海, 歸去北邙。”(毛阳光·余扶危 主編, 「大唐故中散大夫登州刺史韋君墓誌銘并序」, 『洛陽流散唐代墓誌彙編』, 國家圖書館出版社, 2013, 250-251쪽)

개복순, 유주에는 대문예를 보내 발해에 맞섰다. 將軍 蓋福順을 등주에 보내어 군사를 발동하여 이들을 토벌하도록 했다.³²⁾

특히 ⑧은 최근 발견된 韋俊의 묘지문이다. 여기에는 위준의 죽음과 당시 발해군의 습격에 대하여 기왕의 사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발해의 등주 공격이 은밀히 진행되었고, 발해가 공격한 곳은 자사 위준이 근무하던 등주였다는 사실이다. 등주의 치소는 蓬萊縣이고 登州城은 바다에 면한 천험의 요새였지만 ‘고립된 성’이기도 했다. 관할하는 蓬萊鎮 수비군이 5백 명, 平海軍이 1천여 명으로 도합 1천 5백 명³³⁾ 혹은 3천 내지 4천 명이었다고 한다.³⁴⁾ 장문휴가 이끄는 발해군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당 등주의 군사에 버금가거나 많지 않았을까 짐작된다.³⁵⁾

위준이 洛陽에 매장되는 시점인 개원 21(733)년 5월 20일경, 당은 발해의 세력이 “지금은 망하였다(今也則亡)”며 진입되었거나 적어도 약화되었던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다. 다만, 발해 세력이 망한 곳이 登州 지역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외 양국이 접전하던 곳까지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다.

발해는 장문휴가 登州를 공격하는 한편, 당의 동북지역 거점인 幽州 지역도 공략하였다. 이곳은 발해 武王이 직접 출전하였다. 許孟容이 지은 「烏承洽神道碑」에 의하면, 발해왕이 海濱을 나서 馬都山에 이르러 城邑을 함락하고 죽였다.³⁶⁾ 당 현종은 大門藝를 파견하여 幽州에 가서 군사를 징발

32) 『舊唐書』 권8, 本紀 8, 玄宗 上, “(개원 20년 9월 乙巳) 渤海靺鞨寇登州, 殺刺史韋俊, 命左領軍將軍蓋福順發兵討之.”

33) 辛时代·郭威, 「韦俊墓志与渤海寇登州事件始末」, 『北方文物』 2018년 2기, 62쪽.

34) 冯晓晓, 「唐代登州刺史韦俊墓志铭考析」, 『鄂州大学学报』第24卷 第2期, 2017, 34쪽

35) 734년 9월 평해군이 바닷가 입구로 이동한 것은(“辛巳, 移登州平海軍於海口安置. 『舊唐書』 卷8, 本紀第8, 玄宗 上, 開元22년 9월), 발해 재침 예방 조치로 해석된다. (김종복,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2009, 27쪽) 등주의 해상 방어력 강화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辛时代·郭威, 「韦俊墓志与渤海寇登州事件始末」, 62쪽)

하여 이를 토벌토록 했다. 무왕과 대문예가 이곳에서 직접 마주쳐 싸움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³⁷⁾ 국외적으로는 신라와 함께 발해 공격에 나섰다.

발해 남쪽 경계 지역의 전투는 자료⑥ 崔致遠전에서 겨울이 깊고 눈이 많아 蕃·漢이 추위에 고생하자 勅命에 의해 회군하게 되었다. 이 기록을 통하여 신라만 아니라 당의 군대도 함께 발해와의 전쟁에 참가한 것을 알 수 있다.³⁸⁾ 발해 남경 공격에 나선 당군은 아마도 내사 高品·何行成과 함께 신라에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³⁹⁾

발해가 당과 전쟁을 벌이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 흑수말갈을 둘러싼 대립에서 찾을 수 있다. 개원 10년(722) 흑수 추장 倪屬利稽이 입당하고, 당 현종이 그를 勃利州刺史에 제수하였다. 개원 13년(725)에는 안동도호 薛泰가 흑수말갈에 黑水軍을 설치하자고 청하였다. 무왕은 특히

36) 『韓愈集』 권26, 碑志3, 「烏氏廟碑銘」, “許孟容作 烏承治神道碑云 渤海王武藝出海濱, 至馬都山, 屠陷城邑. 公以本營土馬, 防遏要害.”

37) 무왕의 마도산 침입 시기는 732년 9월 등주 공격과 같다고도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 이후 별개로 보아야 할 듯 하다. (林南守, 「신라 聖德王代 溟江鎮 설치 배경」, 앞의 책, 12-13쪽). 자료⑦의 烏承玼傳에서도 대문예(무왕)가 유주 지역의 마도산을 침입한 것은 문예를 동도에서 저격한 사건 뒤의 일이다. 무왕이 대문예를 저격하려고 한 것에서 무왕의 대문예에 대한 적개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대문예의 무왕에 대한 원망도 상당하였을 것이다. 당 현종이 대문예를 마도산 지역에 파견한 것도 대문예의 무왕에 대한 복수심을 적절히 이용한 조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38) 발해와 당·신라 간의 충돌에 대한 최근의 논저로는 林南守, 「신라 聖德王代 溟江鎮 설치 배경」, 앞의 책; 전덕재, 「新羅 下代 溟江鎮의 設置와 그 性格」, 『大丘史學』 113, 2013; 김종복, 「8세기 초 발해·당의 긴장관계에 대한 신라의 외교전략 - 나당간의 국서를 중심으로 -」, 『大丘史學』 126, 2017; 임상선, 「8세기 신라의 渤海·唐 전쟁 참전과 溟江 보루 설치」, 『新羅史學報』 45, 2019 등 참조.

39) 『三國遺事』에 의하면 개원 21년(733) 당나라 사람이 北狄을 정벌하고자, 신라 請兵을 위한 客使 604명이 왔다 돌아갔다고 한다. (『三國遺事』 권제2, 紀異제2, 孝成王, “開元二十一年癸酉, 唐人欲征北狄, 請兵新羅客使六百四人來還國”). 이들이 그 일부일 것이다. (이영호, 「金思蘭 : 唐을 선택한 망명자」, 『북현사림』 28, 2010, 98쪽)

흑수말갈이 당에 관리(長史인 듯함)를 청함에 이르러, 양국이 공모하여 발해를 협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흑수 토벌을 꾀하였다. ⑤『新唐書』 발해전에서 張文休가 海賊을 거느리고 登州를 친 것이 '10년 뒤'의 일이라 하였다. 개원 20년의 등주 공격 이전 '10년'은 대략 개원 10년이다. 바로 무왕이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얼마 안되어(未幾)', 黑水靺鞨이 入朝한 시기이다. 『신당서』 발해전의 편찬자도 발해 등주 공격이 黑水靺鞨의 입당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대문예에 대한 양국의 상반된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대문예는 흑수 토벌이 발해가 멸망에 이르는 길이면서 동시에 당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⁴⁰⁾ 당으로 망명했다. 당은 대문예를 비호하였다. '흑수가 당의 벼슬을 청하였다 하여 그를 바로 치고자 한다면 이는 당을 배반하는 것'이라 한 대문예의 말은 바로 당의 입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당은 대문예를 죽이거나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⁴¹⁾ 이로 인한 발해의 당 등주 공격은 발해와 당, 나아가 신라까지도 연계된 국제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무왕은 당, 신라와 전쟁을 벌이고도 원망이 풀리지 않아 자객을 보내 문예를 죽이고자 하였다. 문예의 직접적인 '죄상'이란 왕인 무왕 자신의 흑수 토벌에 반대한 점, 소환 요구에 불응한 점, 그리고 승낙 없이 당으로 달아난 행위였을 것이다. 『삼국사기』에서도 개원 20년 발해가 등주를 공

40) 『新唐書』 219, 北狄, 渤海, “與之產怨, 我且亡. --- 唐兵一臨, 掃地盡”; 『舊唐書』 199 下, 北狄列傳, 渤海靺鞨, “一朝結怨, 但自取滅亡 --- 唐兵一臨, 掃地俱盡.”; 『資治通鑑』 권제213, 玄宗 開元14년, “巨與唐為怨, 此亡國之勢也”

41) 당이 처음에 문예를 죽이는 대신에 '嶺南'으로 보냈다고 한 조치를 발해가 납득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嶺南'은 死罪人の 유배지였다. (『舊唐書』 권 9, 本紀제9, 玄宗, 開元 26년 춘정월 丁丑, “制天下繫囚, 死罪流嶺南, 餘並放免”). 또한 최고의 遠惡處이기도 하기 때문에(『舊唐書』 권41, 志제21, 地理4, 十道郡國4, 嶺南道, 安南府, 芝州 下, “析城 州所治. 無戶口及兩京道里, 四至州府. 最遠惡處”), '安西'에 비해 상대적으로 '惡地'였다. (『新唐書』 219, 北狄, 渤海).

격한 것이 天朝에 대한 '怨恨'에서 비롯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셋째, 무왕과 대문예 사이의 다툼이 발해 내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발해국의 王位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⁴²⁾ 『新唐書』 烏承玘전에서 “戰國中”에 대문예가 당에 왔다고 하였다. 무왕과 문예가 발해 내에서 ‘싸움(전쟁)’을 하다가, 문예가 왔다는 의미이다. 이 싸움은 흑수 문제를 둘러싼 의견 다툼이 원인인 듯이 기술되고 있지만, 또 다른 요인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⁴³⁾ 당시 발해에서 국가의 존망이 좌우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王位를 둘러싼 알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728년 8월, 무왕의 장자인 大都利行이 당에서 숙위로 있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⁴⁴⁾ 발해의 왕위는 적장자 계승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형제상속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도리행의 죽음은 무왕 이후 왕위를 누가 계승할 것인지 논란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무왕의 아들과 무왕의 동생인 대문예가 서로 차기 왕위 계승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문예의 망명은 왕위를 둘러싼 ‘싸움(전쟁)’에서 패배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⁴⁵⁾

42) 三上次男, 『渤海國の興亡』, 『圖說世界文化史』 19, 角川書店, 1959.

古畑徹, 「大門芸の亡命年時について -唐渤海紛争に至る渤海の情勢-, 앞의 책.

沈勝求, 「渤海 武王의 政治的 課題와 登州攻擊」, 앞의 책.

酒寄雅志,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2001.

石井正敏, 「對日本外交開始前後の渤海情勢 - 玄宗皇帝「勅渤海王大武藝書」の檢討-, 앞의 책.

김종복, 「발해와 당의 사신 파견을 통해 본 大門藝 亡命사건의 추이」, 앞의 책 등 참조.

43) 무왕이 별도로 자객을 보내는 등 끝까지 門藝를 죽이고자 했던 까닭이 親唐派의 핵심세력인 門藝를 제거함으로써 국내 친당세력의 준동을 차단하고 집권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추정도 있다. (沈勝求, 「渤海 武王의 政治的 課題와 登州攻擊」, 앞의 책, 32쪽).

44) 『冊府元龜』 권975, 外臣部, 褒異제3, “(開元 16년 4월)癸未, 渤海王子留宿衛大都利行卒, 增特進兼鴻臚卿, 賜絹三百疋粟二百石, 命有司弔祭, 官造靈輦歸蕃”

넷째, 8세기 전반 발해를 비롯한 당, 거란, 돌궐 등의 국제 관계 속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8세기 전반 발해는 당과 대립·교류하는 한편, 돌궐, 거란과는 친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730년 전후 거란이 당에 패하고, 발해도 또한 대문예 문제로 수세로 몰린 상황의 타개책으로 당과 전쟁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⁴⁶⁾ 발해는 이를 통하여 거란을 지원하고, 장차 있을 당의 공격에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⁴⁷⁾

V. 발해와 당의 교류 재개

732년 발해의 당 등주 공격으로 시작된 두 나라간의 전쟁은 일방의 승리나 패배 없이 끝났다. 발해와 당이 교류를 재개하게 되는 움직임을 張九齡이 작성한 칙서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

⑨ 張九齡, 「敕渤海王大武藝書」 2首 (『全唐文』 권285)

발해군왕 흘한주도독 대무예에게 칙서를 내린다.

순역의 단서도 알지 못하고 존망의 징조도 알지 못하면서 나라를 보유

45) 石井正敏은 당 현종이 언제라도 무왕 대신에 대문예를 발해왕으로 책립시킬 수 있다는 태세를 취하고, 무왕도 당의 이러한 의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문예 처벌과 암살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石井正敏, 「對日本外交開始前後の渤海情勢 - 玄宗皇帝「勅渤海王大武藝書」の檢討-,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1, 331쪽.)

46) 古畑徹, 「唐渤紛爭の展開と國際情勢」, 『集刊東洋學』 55, 1986(임상선 편역, 「唐渤紛爭의 展開와 國際情勢」,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1990); 권은주, 「발해의 등주 공격을 통해 본 국제동맹과 외교」, 『역사와 세계』 44, 2013 참조.

47) 이밖에 발해가 新羅와의 대립으로 인해 그 지원세력인 唐을 공격하였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 - 南北國의 形成과 展開』, 187-188쪽.)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소. 경이 지난해에 덕을 배반하고(背德) 이미 재앙의 섬돌에 있었소. 근일에 과오를 능히 회개하며 신하의 절의를 잃지 않고 미혹에서 돌아와 잘못이 멀어지니善함에 또 무엇을 더하겠소. 짐은 사람의 장점은 기억하고 단점은 잊어버리오. 하물며 이제 귀복하였으니 가극하고 찬탄할 것이니 東土의 조업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소. 大成慶 등을 입조하라 한 것은 이미 다 처분하고 각각 官賞을 더해주었은즉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오. 다른 사람을 대체하겠다고 한 청에 대해서도 그를 돌려 보내주라고 하였소. 그리고 근간에 얻어 본 경의 표에, 돌궐이 사신을 보내와서 연합하여 두 번국을 치자고 한다고 하오. 奚와 契丹은 지금 內屬하였는데, 돌궐이 사사로운 원한으로 이 蕃에 원수를 갚자고 하는 것이니, 경이 쫓지 않아도 무방하오. 온 사신을 붙잡아 두겠다고 하는 것은 의리상 그렇지 않은 인정인데 하물며 君道가 그럴 수 있소. 그런즉 경의 충성과 붉은 마음은 알고 있으니 행동을 하려들면 반드시 알리도록 하오. 이 정성을 영원히 보존하여 경사가 흘러 멈추지 않게 하시오. 늦은 봄에 경과 아관, 백성은 모두 편안하기를 바라오. 보낸 글의 뜻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많소.⁴⁸⁾

⑩ 張九齡, 「敕渤海王大武藝書」 4首(『全唐文』 권285)

48) 『全唐文』 권285, 「敕渤海王大武藝書」 2首, “敕渤海郡王忽汗州都督大武藝：不識逆順之端，不知存亡之兆，而能有國者，未之聞也。卿往年背德，已為禍階，近能悔過，不失臣節；迷復非遠，善又何加？朕記人之長，忘人之短，況此歸伏，載用嘉歎，永祚東土，不亦宜乎！所令大成慶等入朝，並已處分，各加官賞，想具知之。所請替人，亦令還彼。又近得卿表云，突厥遣使求合，擬打兩蕃 奚及契丹。今既內屬，而突厥私恨，欲讎此蕃，卿但不從何妨？有使擬行執縛，義所不然，此是人情，況為君道？然則知卿忠赤，動必以聞，永保此誠，慶流未已。春晚，卿及衛官百姓並平安好，遣書指不及多矣。” 『文苑英華』 卷471에 같은 내용이 있다.

홀한주자사 발해군왕 대무예에게 칙을 내린다.

경이 지난번에 잘못된 계책(謀計)이 '禍'가 될 뻔하고, 도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義를 듣고서 능히 바꾸었으니 얼마나 지혜로운가. 짐은 사람의 잘못은 버리고 정성은 받아들이니, 경이 마음을 씻은 것을 표하여 경의 뜻을 위로하는 바시오. 경이 이미 정성과 절개를 다하여 길이 동쪽을 타리를 굳건히 하였으니, 자손 백대가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최근에 사신이 이르러 그 정성을 다 알았소. 아울러 宿衛를 바꾸게 해주기를 청한 것에 대해서는, 역시 이미 행하게 하였소. 大郎雅 등은 앞서 國章을 범하였기에 남쪽 변경으로 쫓아냈는데, 또한 모두 죄를 용서해 주고 이어 석방하여 번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음은 경이 잘 알고 있듯이 모두 짐의 뜻이오. 초여름이라 날씨가 점차 더워지는데 경 및 수령, 백성 등은 모두 평안하기 바라오. 보내는 글의 뜻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많소.⁴⁹⁾

⑪ 張九齡, 「敕渤海王大武藝書」 3首(『全唐文』 권285)

발해군왕 홀한주도독 대무예에게 칙한다

多蒙固가 전달한 水手와 전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왔는데, 경의 충성을 드러냄이 다하지 않음이 없소. 길이 이런 마음을 보존하여 영원토록 변방의 울타리가 된다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니 다시 더할 바가 없을 것이오. 점차 날씨가 추워지는데 경 및 아관, 백성 이하는 모두 평안하기 바라오. 보내는 글의 뜻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많소.⁵⁰⁾

49) 『全唐文』 권285, 「敕渤海王大武藝書」4首, “敕忽汗州刺史渤海郡王大武藝：卿往者誤計，幾於禍也，而失道未遙，聞義能徙，何其智也！朕棄人之過，收物之誠，表卿洗心，良以慰意。計卿既盡誠節，永固東藩，子孫百代，復何憂也？近使至，具知款曲，兼請宿衛及替，亦已依行。大朗雅等，先犯國章，竄逐南鄙，亦皆捨罪，仍放歸蕃，卿可知之，皆朕意也。夏初漸熱，卿及首領百姓等並平安好，遣書指不多及。” 『文苑英華』 卷471에 같은 내용이 있다.

「敕渤海王大武藝書」2首는 발해와 당이 전쟁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대성경 등이 入朝하고 특히 속위 등을 교체하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때는 당에 '背德'을 한 발해가 잘못을 뉘우친 시기이기도 하다. 「敕渤海王大武藝書」2首의 내용은 장구령이 작성한 또 다른 칙서인 「敕渤海王大武藝書」4首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경이 지난번에 잘못된 계책(誤計)이 ‘禍’가 될 뻔하고, 도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義를 듣고서 능히 바꾸었으니 얼마나 지혜로운가.”라고 한 내용이다.

「敕渤海王大武藝書」2首와 4首에서 당이 지적한 발해의 ‘背德’과 ‘誤計’는 양국 관계에서 발해의 등주 침공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위 글은 모두 개원 20년(732) 9월 등주 공격 이후, 발해가 당에 사죄하고, 양국간 교류가 정상화되는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4首에 보이는 大郎雅는 발해왕의 동생으로 개원 18년(730) 正月에 賀正使로 입당하여 방물을 바친 적이 있으므로,⁵¹⁾ 4수는 그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金毓黻은 「敕渤海王大武藝書」2수를 발해 무왕이 등주 공격 이후 大成慶을 파견해 사죄하고 돌아가는 중인 개원 21년(733)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⁵²⁾ 大成慶을 발해가 파견한 기록이 없고, 대문예에 대한 응징 요청은 732년 9월 등주 공격 이전에 있었다. 그러므로 733년에 대문예를 죽여

50) 『全唐文』 권285, 「敕渤海王大武藝書」3首, “敕渤海郡王忽汗州都督大武藝：多蒙固所送水手, 及承前沒落人等來 表卿輸誠無所不盡, 長能保此, 永作邊捍, 自求多福, 無以復加. 漸冷, 卿及衙官百姓已下並平安好, 遺書指不多及.” 『文苑英華』卷471에 같은 내용이 있다.

51) 『冊府元龜』 권971, 外臣部16, 朝貢4, “(唐玄宗 開元18년 正月) 靺鞨遣其弟大郎雅來朝賀正, 獻方物. 波斯國王及新羅國王, 各遣使來朝賀正.” 『冊府元龜』 권975, 外臣部20, 褒異2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52) 金毓黻, 『渤海國志長編』 권3, 世紀, 무왕14년(733); 『신편 발해국지장편』 상, 신서원, 2008, 295-296쪽.

달라는 발해 무왕의 요청을 거절하며 대성경을 돌려 보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⁵³⁾

발해의 입당 기록을 고려하면, 발해와 당의 화해는 발해가 登州 공격 이후 다시 당에 사신을 파견한 개원 23년(735) 전후라고 해야 할 것이다. 『册府元龜』 朝貢조에 의하면, 개원 23년(735) 3월, 日本國 사신과 함께 渤海靺鞨王, 즉 武王이 그 동생인 蕃을 보내 入朝토록 했다.⁵⁴⁾ 같은 책 褒異조에는 대번의 내조가 개원 24년(736) 3월⁵⁵⁾이라 하여, 두 기록 사이에 1년의 차이가 있다. ‘조공’하러 온 시기와 사신에 대한 ‘포상’이 일정 시간 차이가 날 것으로 이해한다면, 대번은 개원 23년에 내조하여 宿衛로 머물다가 그 다음 해인 개원 24년에 관작을 받고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대번은 등주 공격 이후 발해 최초의 사신이고, 또한 무왕의 동생이라는 신분이었다. 대번의 사행 목적에는 그동안 불화를 겪고 있던 당과의 화해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검토를 참조하면, 「敕渤海王大武藝書」 2首와 4首는 개원 23년(735) 3월 전후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⁶⁾

「敕渤海王大武藝書」 3首는 발해 무왕이 多蒙固 편에 당 출신 ‘水手 및

53) 金毓黻, 『渤海國志長編』 권9, 宗臣列傳, 大門藝·大成慶; 『신편 발해국지장편』 중, 신서원, 2008, 19-24쪽.

54) 『册府元龜』 권971, 外臣部16, 朝貢4, “(唐玄宗 開元 二十三年(735) 三月, 日本國遣使獻方物. 渤海靺鞨王遣其弟蕃 來朝. 八月, 鐵利部落 拂涅部落 越喜部落 俱遣使來朝獻方物. 林邑國遣使獻馴象. 九月辛巳, 吐火羅國 十二月, 新羅 並遣使來獻方物. 林邑國遣使獻白象”

55) 『册府元龜』 권975, 外臣部20, 褒異2, “(唐玄宗 開元) 二十四年(736) 三月乙酉, 渤海靺鞨王遣其弟蕃來朝. 授太子舍人·員外, 賜帛三十疋, 放還蕃.”

56) 기왕의 연구에서도 「敕渤海王大武藝書」 2首와 4首의 작성 시기를 각론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大蕃의 입당 시기를 참고하여 735년 혹은 736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石井正敏, 「對日本外交開始前後の渤海情勢 - 玄宗皇帝「勅渤海王大武藝書」の檢討-」, 앞의 책 및 김종복, 「발해와 당의 사신 파견을 통해 본 大門藝亡命사건의 추이」, 앞의 책 등)

전에 함락당하였던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에 대한 당의 답신이다. 발해와 당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전쟁 중에 포로를 석방한 것에 대한 玄宗의 답서인 듯하다. 『冊府元龜』에 의하면, 발해의 사신 다몽고는 개원 25년(737) 8월에 당에 입조하였다가 귀국하였다.⁵⁷⁾

이렇게 발해와 당의 전쟁은 서로 간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나고, 양국의 교류가 재개되었다. 교류는 이전의 갈등을 정리하는 데서 출발한다. 발해 입장에는 무엇보다 대문예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무왕이 당을 공격한 이유의 하나가 대문예와의 왕위계승 다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발해가 당과 화해를 시도할 때 이 문제도 그 내용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발해 입장에서는 최소한 대문예의 발해 왕위 계승 주장을 부인하고, 당으로부터도 동의를 요구하였을 것이다. 흑수말갈 문제는 당측에서 교류의 전제 조건이었을 것이다. 발해는 흑수말갈에 대한 압박을 중지하고, 당과의 교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개원 29(741)년 2월, 월희말갈, 발해와 함께 흑수말갈이 賀正使로 당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⁵⁸⁾ 발해와 당의 관계는 무왕에 이어 그 아들인 文王이 즉위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⁵⁹⁾

57) 『冊府元龜』 권975, 外臣部20, 褒異2, “(唐玄宗 開元25년) 八月戊申, 渤海靺鞨大首領多蒙固來朝. 授左武衛將軍, 賜紫袍金帶及帛一百疋, 放還蕃.”

58) 『冊府元龜』 권971, 外臣部16, 朝貢4, 開元 29년 2월조 및 『冊府元龜』 권975, 外臣部20, 褒異2, 開元 29년 2월 己巳조.

59) 司馬光은 대문예가 충성을 했으나 죄를 얻고 천자에게 왔는데, 천자가 마땅히 그 잘잘못을 살펴서 門藝를 상주고 武藝는 벌을 주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설령 토벌하지 못하더라도 문예가 無罪라고 알려야 했는데, 현종이 무예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문예를 은혜로 보호하지 못하였다고 평하였다. (『資治通鑑』 권제213, 玄宗 開元 24년, “臣光曰: 王者所以服四夷, 威信而已. 門藝以忠獲罪, 自歸天子. 天子當察其枉直, 賞門藝而罰武藝, 為政之體也. 縱不能討, 猶當正以門藝之無罪告之. 今明皇威不能服武藝, 恩不能庇門藝, 顧效小人為欺誑之語, 以取困於小國, 乃罪鴻臚之漏洩, 不亦可羞哉) ”

VI. 맺는말

732년 渤海의 登州 공격으로 시작된 발해와 唐의 전쟁은 여기에 新羅도 참여하며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양국 간 다툼의 시발점이 된 黑水靺鞨 문제는 개원 10년(722) 흑수 추장 倪屬利稽가 입당하고 玄宗이 그를 勃利州刺史에 제수한 것에서 비롯하였다. 개원 13년(725) 안동도호 薛泰가 흑수말갈에 黑水軍 설치를 청하자, 개원 14년(726) 흑수말갈의 최대 부락을 黑水府로 하고 그 수령을 都督으로 삼고 長史를 두어 부락을 監領하도록 했다.

흑수말갈 문제에 대한 武王의 조치와 大門藝의 唐으로의 망명의 시기를 판단하는 데는 흑수말갈의 입당 시기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冊府元龜』의 기록에 의하면, 흑수가 마지막으로 入唐한 시기가 개원 18년(730) 5월이므로, 무왕의 흑수 토벌과 대문예의 당 망명은 730년 5월 이후에 발생하였을 것이다. 대문예의 처리를 둘러싸고 발해와 당 간에 국서가 교환된 시기는 이때로부터 732년 등주 공격 이전 大姓取珍 등의 발해 사신이 마지막으로 입당한 개원 19(731)년 10월까지이다.

발해 무왕이 「敕渤海王大武藝書」 1首를 접수하고 당의 침입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맞선 대응의 결과가 당이 발해를 침입할 때의 전진 기지인 登州 지역에 대한 선제공격이었다. 최근 발견된 韋俊의 墓誌에 의하면, 발해의 등주 공격이 은밀히 진행되었고, 발해가 공격한 곳은 자사 위준이 근무하던 登州였다. 발해가 당과 전쟁을 벌인 원인으로는 흑수말갈을 둘러싼 대립, 대문예에 대한 양국의 상반된 인식, 발해국의 王位와 연관, 그리고 8세기 전반 발해를 비롯한 당, 거란, 돌궐 등의 국제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발해가 당과 전쟁을 한 이후 다시 당에 사신을 파견한 것이 개원 23년

(735) 3월이다. 이때 日本國 사신과 함께 渤海靺鞨王, 즉 武王이 그 동생인 蕃을 보내 入朝했다. 「敕渤海王大武藝書」 2首와 4首에서 발해의 '背德'과 '謀計'는 발해의 등주 침공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글은 모두 개원 20년(732) 9월 등주 공격 이후 발해가 당에 사죄하고 양국간 교류가 정상화 되는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敕渤海王大武藝書」 2首와 4首는 개원 23년(735) 3월 전후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해와 당은 개원 23년(735) 무왕이 그 동생인 蕃을 보내 入朝하고, 당도 이를 수용하면서 교류를 재개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2020.11.27. 투고 / 2020.12.16. 심사완료 / 2020.12.24. 게재확정)

[Abstract]

Study on war process between Balhae and Tang Dynasty in 732

Lim, Sang-sun

For the war between Balhae and Tang Dynasty in 732, Silla is also involved and this has expanded to international war in South East Asia. This research reviewed data on the war and how it happened, processed, then made up.

One of the reasons for the conflict between Balhae and Tang Dynasty is because of the issue in regards to Heuksu Magal race. In year 722, the head of the race came to Tang Dynasty to pay a tribute and Tang Dynasty granted the person with position called Jasa(刺史). In 725, one of the administrators in Tang Dynasty called Seotae suggested to install Heuksu army in the area and from year 726, the major region was considered as Heuksu administration and the minor area as regional administration. In 728, regional administrators were granted with the family name Lee and made them belong to Tang Dynasty, which has become a big threat to Balhae.

As this is the case, King Wu of Balhae tried to suppress Heuksu Magal and his brother Damenyi exiled to Tang Dynasty after May 730. King Wu strongly asked for punishment of his brother but the King of Tang Dynasty refused this and even tried to punish Balhae. In regards to this, King Wu first attacked Dengzhou which will be the main war place if Tang attacked Balhae first. This is how the war started.

There were four reason for Balhae to start the war. First, there was conflict between Heuksu Malgal and Damenyi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 King Wu was unhappy about Tang Dynasty protecting him. Thirdly, it was the war over the kingdom between King Wu and his brother. The last reason w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the early 8th century.

The war between Balhae and Tang lasted 3 years and the two countries exchanged ambassadors in 735.

□ Keyword

Balhae, Tang Dynasty, The Conflict between Balhae and Tang Dynasty, Heuksu Magal race, King Wu of Balhae, Dengzhou

[참고문헌]

- 권은주, 「靺鞨 7部の 實體와 渤海와의 關係」, 『高句麗渤海研究』 35, 2009.
- 권은주, 「발해의 등주 공격을 통해 본 국제동맹과 외교」, 『역사와 세계』 44, 2013.
- 김종복, 「8세기 초 발해·당의 긴장관계에 대한 신라의 외교전략 - 나당간의 국서를 중심으로 -」, 『大丘史學』 126, 2017.
- 김종복, 「발해 건당사에 대한 기초적 검토」, 『발해 대외관계사 자료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
- 김종복, 「발해와 당의 사신 파견을 통해 본 大門藝 亡命사건의 추이」, 『역사와경계』 76, 2010.
- 朴南守, 「신라 聖德王代 溟江鎮 설치 배경」, 『사학연구』 110, 2013.
- 沈勝求, 「渤海 武王의 政治的 課題와 登州攻擊」, 『군사』 31, 1995.
- 이영호, 「金思蘭 : 唐을 선택한 망명자」, 『복현사람』 28, 2010.
- 임상선, 「8세기 신라의 渤海·唐 전쟁 참전과 溟江 보루 설치」, 『新羅史學報』 45, 2019.
- 임상선, 「8세기 韓日關係史 爭點의 再檢討 - 渤海·日本간의 國交 개시와 '新羅征討計劃' 문제를 중심으로 -」, 『新羅史學報』 41, 2017.
- 전덕재, 「新羅 下代 溟江鎮의 設置와 그 性格」, 『大丘史學』 113, 2013.
- 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 - 南北國의 形成과 展開』, 신서원, 1994.
- 古畑徹, 「大門芸の亡命年時について -唐渤海紛争に至る渤海の情勢-」, 『集刊東洋學』 51, 東北大学中国文史哲研究会, 1984.
- 古畑徹, 「唐渤海紛争の展開と國際情勢」, 『集刊東洋學』 55, 1986(임상선 편역, 「唐渤海紛争의 展開와 國際情勢」,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1990).
- 古畑徹, 「張九齡作「勅渤海王大武芸書」第一首の作成年時について -「大門

- 芸の亡命年時について」補遺』、『集刊東洋學』59, 1988.
- 三上次男, 「渤海國の興亡」, 『圖說世界文化史』19, 角川書店, 1959.
- 石井正敏, 「對日本外交開始前後の渤海情勢 - 玄宗皇帝「勅渤海王大武藝書」
の檢討-」,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1.
- 酒寄雅志,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2001.
- 金毓黻, 『渤海國志長編』(『新編 渤海國志長編』 상·하, 신서원, 2008).
- 毛阳光·余扶危 主編, 「大唐故中散大夫登州刺史韦君墓誌銘 并序」, 『洛陽流
散唐代墓誌彙編』, 国家图书馆出版社, 2013.
- 辛时代·郭威, 「韦俊墓志与渤海寇登州事件始末」, 『北方文物』2018-2.
- 冯晓晓, 「唐代登州刺史韦俊墓志铭考析」, 『鄂州大学学报』24-2, 2017.

